

오염에 죽어버린 호남의 젖줄 수심마저 얕아 아슬아슬 운항

■ 르포-영산강 100리 뱃길을 가다

2일 오전 10시30분 영암군 삼호읍 나불포구. 영산강 살리기 사업의 본격적인 착공에 앞서 생태환경 뱃길탐사에 나선 20여명의 탐사선 ‘한남호’와 ‘뉴 갈매기호’ 두 척이 100여 리 길을 달리기 시작했다. 환경단체 관계자와 지역개발 전문위원 등 80여 명을 태운 뱃길 탐사선은 영산강 상류로 천천히 거슬러 올라가기 시작했다.

강 하류부분에서는 폭 2km에 최고 수심이 14m에 달하는 영산호가 시원스럽게 펼쳐졌다. 하지만, 4급수로 전락한 영산호는 갈보기와는 달리 악취가 코를 찔렀고, 이미 짙은 갈색으로 변해버린 강 일부에서는 벌써부터 녹조현상이 시작됐다. 최근에는 녹조 위에 하늘색 오염원 때가 한 층 더 생겨나는 바람에 근처에만 가도 역겨운 냄새가 날 정도였다. 이날 수질측정을 한 결과 영산호의 EC(전기전도도)는 780으로, 주암호와 장흥호의 70~80에 비해 10배가량 높았다. 용존산소량(DO)은 4.1, PH농도는 8.0에 달했다. EC는 물속의 불순물성이 많을수록 수치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불도 인근 선착장 수치는 강 속 불순물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점을 여실히 보여줬다.

쓰레기 몸살속 녹조·악취 뒤범벅

스크루에 페그물 걸려 탐사 포기

“예전처럼 배 마음대로 다녔으면”

무안 몽탄대교 인근에서는 전남도의 환경 정화선인 ‘영산강 호’가 배에 설치된 가동기를 사용해 물속에 버려진 나무 등걸을 끌어올리고 있었다. ‘영산강 호’ 갑판에는 지난 30년간 강 바닥에 쌓여있던 건져 올려진 폐그물과 폐건자재가 수북했다. 나불도 선착장으로부터 22km 떨어진 몽탄대교 인근 수질은 영산호 보다 좀 더 나았다. EC는 207로 떨어졌고, PH 농도는 7.5로 낮아졌다. 용존산소량은 2.4였다.

이처럼 수질이 열악한 상황에서도 영산호에는 여전히 20년째 양식장이 운영되고, 붕어와 잉어 등을 잡는 내수면 어업선도 170여 척에 이르는 등 영산호와 영산강은 여전히 내수면 어업인들의 생계 터전으로서 역할을 다하고 있다. 하지만, 강의 오염이 심해지면서 기형 어류들이 출현하고, 개체수가 워낙 많이 줄어들면서 어업으로만 생계를 이어갈 수 없는 처지에 놓였다. 강 상류로 거슬러 올라갈수록 고깃배들은 많아졌다.

함평군 사포나루에는 아직도 20여 척의 내수면 어선들이 정박해 있고, 주민들은 그물망 손질에 한창이었다. 예전에는 빙어, 가물치, 참붕어, 미꾸리, 송사리, 누치 등 일부 멸종위기종까지 잡혔던 ‘물’ 좋은 곳이었지만, 이젠 찾아볼 수 없게 됐다.

영암군 삼호읍 나불리 원주민인 전도영(56)씨는 “종요로왔던 영산강이 죽음의 강으로 변하면서 인근 주민들도 경제적 어려움 등을 겪고 있다”면서 “수질 및 치수 개선을 통해 영산강을 살리고 예전처럼 배도 마음대로 다닐 수 있도록 영산강 살리기 사업이 잘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2면으로 계속)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본격적인 영산강살리기 사업에 앞서 2일 ‘영산강 생태환경 뱃길 탐사’에 나선 탐사선 2척이 영산강을 거슬러 올라가고 있다. 환경단체 관계자와 지역개발 전문가 등 80여 명이 참가한 이번 탐사는, 함평군 학교면 곡창리 사포나루 인근에서 탐사선 한 척이 물속 페그물에 스크루가 걸려 멈추는 바람에 예정보다 일찍 마무리됐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알림

인터넷 광주일보 2.0 시대 엽니다

인터넷 광주일보(www.kwangju.co.kr)가 2.0 시대를 엽니다.

기존의 알개를 완전히 바꾼 새 인터넷 광주일보는 네티즌 여러분이 보다 쉽고 편안한 웹생활을 할수 있도록 꾸며져 있습니다. 57년 전통 광주일보 고유의 컬러 초록색을 주조로 한 인터넷광주일보 2.0은 6개월여의 준비기간과 한달여의 가오판을 통해 철저한 검증도 마쳤습니다. 인터넷광주일보 2.0에 독자 여러분의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심플 앤 이지 (Simple And Easy)

인터넷 광주일보가 보다 깔끔하고 쉬워졌습니다.

인터넷 광주일보 2.0은 독자들이 원하는 정보를 보다 빨리 찾을 수 있게 카테고리가 간소화됐으며

각종 기사들을 단 한번의 클릭으로 볼수 있게 재배치했습니다. 카테고리도 간소화되면서 기사 검색도 예전보다 빨라졌습니다.

●오락·스포츠 뉴스 강화

연예오락·스포츠뉴스를 더욱 강화했습니다. 동아닷컴·머니투데이와 업무 협약을 통해 국내·외 해외 스타들의 재미있는 읽을거리의 물론 각종 연예 뉴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또 올 시즌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기아 타이거즈 야구 소식을 발 빠르게 전할 수 있게 별도의 카테고리를 마련했고 경기 속보도 실시간으로 뜹니다.

●한 발 빠른 업데이트

인터넷 광주일보 2.0은 급변하고 있는 시대상황에 맞춰 실시간 뉴스 업데이트를 제공해 더욱 다양한 정보를 독자들에게 전달하고있습니다. 광주·전

남지역은 물론 우리나라와 해외에서 벌어지고 있는 각종 뉴스들을 한 발 빠르게 홈페이지를 통해 전해드리겠습니다.

光州日報社

“비정규직법 기간 연장후 근본대책 세워야”

이대통령 “정치적 목적 버리고 국회 조기 해결을”

이명박 대통령은 2일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 “근본적인 것은 고용의 유연성인데 종합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3차 민관합동회의에서 “국회가 적절한 기간을 연장하고 그 기간에 근본적인 해결책을 세워야 한다. 연기하는 것도 사실은 근본적 해결책이 아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금부터 해결하려고 하면 그 피해는 비정규직이 보니까 충분히 논의할 시간을 연장해놓고 여야 의원이 정말 근로자를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하면 된다고 본다”면서 “정치적 목적을 갖고 하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빨리 해결해줬으면 좋겠다”면서 “여야 다 이유가

있겠지만 지금 시점은 비정규직 근로자에 초점을 맞춰서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이 대통령은 “위기에 가장 어려운 계층은 서민”이라며 “재래시장은 마케팅 등에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대형 슈퍼마켓과 경쟁이 안된다. 그렇다고 가격이 싸고 편리한 슈퍼마켓을 문닫으라고 할 수는 없다. 상생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보면 법으로 하지 않더라도 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등 경제5단체장은 이날 비정규직법안이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고 정치권에 요구했다.

이들은 이날 서울 남대문로 상의회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비정규직 근로자 문제의 바람직한 해결책은 사용기간 제한을 폐지하는 것”

이라며 “법 시행시기를 유예해서라도 근로자들의 해고를 막겠다면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경제5단체장은 이날 대량실업을 막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했다. 손경식 상의 회장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비정규직 근로자를 보호할 것”이라며 “비정규직 문제의 본질이 정규직에 대한 과보호에서 비롯된 만큼 정규직과의 차별을 해소해 나가면서 비정규직 고용의 유연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동욱기자 tuim@·연합뉴스



밝은안과 21

신축이전과 함께 밝은클리닉센터가 탄생합니다.

최고의 의료진과 최첨단 의료장비로 최상의 진료서비스를 제공합니다.

8인방 진료 전문진이 함께합니다.

신축이전과 함께 밝은클리닉센터가 탄생합니다.

12층 신축건물로 이전합니다.

가장 안전한 '다빈치 로봇' 및 가장 빠른 '알레그레로 불루리안' 도입

최고의 의료진과 최첨단 의료장비로 최상의 진료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2층 신축건물로 이전합니다.

가장 안전한 '다빈치 로봇' 및 가장 빠른 '알레그레로 불루리안' 도입

최고의 의료진과 최첨단 의료장비로 최상의 진료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2층 신축건물로 이전합니다.

가장 안전한 '다빈치 로봇' 및 가장 빠른 '알레그레로 불루리안' 도입